

학령전기 장애 아동 부모와 비장애 아동 부모의 놀이 인식과 놀이 참여 비교 연구

박다솔*, 이은영**, 이선희**, 박혜연***

*연세 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작업치료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박사과정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전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부모들에게 자녀의 놀이에 관한 포괄적인 설문지를 시행하여 놀이 인식을 알아보고 각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놀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제작된 설문지를 설문요청에 동의한 대상자 700명에게 발송하였다. 미회수 및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하고 총 596부의 설문지가 분석되었으며 이 중 106부가 장애아동 부모의 설문지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dow 23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빈도분석과 독립표본 T 검정이 시행되었다.

결과 : 장애 아동 부모는 비장애 아동 부모에 비해 자녀와의 놀이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자녀와의 놀이에 대한 즐거움 인식은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부모 간에 큰 점수 차이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 = 0.053$). 자녀와의 놀이 참여시간은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모두 부모보다 모와의 참여시간이 많았다. 모의 경우 장애아동의 모가 놀이참여 시간이 더 많았고, 부의 경우 비장애 아동의 부가 더 많았다.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 부모 모두 장난감을 사주는 빈도는 '보통' 정도가 가장 많았으며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 부모 모두 놀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놀잇감을 살 때 고려사항은 흥미 유발, 발달수준, 안전 순이었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학령전기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부모의 놀이 인식 및 참여 실태를 비교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부모들이 놀이 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알 수 있고, 추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놀이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놀이 인식, 놀이 참여, 장애 아동, 학령전기 아동

I. 서론

놀이는 인간이 성장 과정을 통해 누구나 필수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거치게 되는 발달 단계 중의 하나이며, 삶의 자체인 동시에 세상을 이해하는 수단이다. 놀이는 유아기 시절부터 절정을 보이는 발달과정으로(Lee, 2010), 아동은 놀이 과정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며, 세상을 경험하고 사회화 되어간다(Pellegrini, 1995). 또한, 아동은 놀이를 통해 신체, 인지, 정서, 언어, 사회적으로도 발달해간다(Lee et al., 2009). 놀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놀이가 유아에게 있어서 생활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학습과 발달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Park, 2003).

부모는 자녀가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제공자이며, 자녀와 놀이를 함께하는 참여자이다(Park & Kim, 2011). 유아의 놀이성은 주 양육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Lee & Lee, 2010) 놀이에 대한 부모의 민감성은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Grossmann et al., 2002). 이와 같이 부모의 놀이에 관한 관심과 참여는 자녀의 발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된다(Kim, 1998). 놀이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모는 자녀에게 많은 놀이 기회를 제공하여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Jang, 2014). 또한, 자녀와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는 자녀의 자기 존중감과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Won, 1998). 반면 놀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부모는 자녀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자녀의 잠재력을 발휘시키지 못해 또래와의 놀이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부적응을 만든다(Fogel, Shapiro, Hsu, & Secrist, 2006).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놀이 지도 및 참여 여부가 놀이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하였듯이(Slade, 1987), 부모의 놀이인식 수준은 아동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의 놀이 인식 수준을 알게 되면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예상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부모의 놀이인식과 참여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Kim, 2000; Hong, 2010; Rothlein & Brett, 1987)들이 진행되었다. Kim(1991)은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어머니의 자녀들에게서 놀이 활동성 및 놀이 중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어머니의 인식이 높을수록 유아기 놀이에 더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Hughes(2010)는 어머니가 느끼는 놀이의 즐거움의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어머니가 아이와 재미있게 놀았다고 답한 경우 그렇지 않다고 답한 어머니와 그 아이보다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놀이 참여 관한 연구 중 Lee와 Chung(2016)은 부모의 놀이 참여시간이 높을수록 유아가 느끼는 행복감이 커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의 대상자는 비장애아동의 부모들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9세 이하 등록 장애인 수는 27,256명으로 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장(총칙) 제 1조(목적)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같은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받는 장애아동통합교육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대상으로 한 놀이인식 연구결과가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 부모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거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장애아동 부모들은 비장애아동의 부모들보다 그들의 자녀에게 더욱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장애아동 부모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Jung & Choi, 2010). 또한, 놀이적 측면에서 보아도 장애아동은 신체적·정신적 진단에 따라 놀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장애아동 부모들은 놀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 부모의 놀이인식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전 장애아동 및 비장애 아동 부모들에게 자녀의 놀이에 관한 포괄적인 설문은 시행하여 놀이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장애아동 및 비장애 아동 부모의 놀이인식 비교를 바탕으로 각 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놀이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들이 올바른 놀이인식을 확립하고 아동이 올바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학령전기 장애 아동 및 비장애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요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총 596명으로 이 중 106명의 장애아동 부모 집단, 490명의 비장애 아동의 부모 집단으로 나누어 정보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 아동의 일반적 현황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 아동 연령은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 모두 4~5세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장애 아동은 2~3세, 비장애 아동은 6~7세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아동들이 첫째인 경우가 장애 아동은 69.2%, 비장애 아동은 57.6%로 가장 많았으며, 주 양육자는 모가 가장 많았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설문지 발송 전 학령전기 아동 부모들의 설문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직접 전달 혹은 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또한, 설문지 맨 앞장에 설문에 관해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설문지 수집 및 정보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명을 받았다. 설문참여에 동의한 부모에게 총 700부의 설문을 발송하여 총 633부(회수율 90.4%)가 회수되었다. 이 중 응답하지 않은 설문 및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하고 총 596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3.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부모의 일반적 정보, 부모의 놀이에 대한 인식, 놀이참여 시간, 놀이감 등을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정보는 아동의 연령, 태어난 순서, 주 양육자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놀이에 대한 인식 중 놀이 중요성과 놀이 시 즐거움을 객관적 수치로 나타내는 표준화된 평가도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Lee 등(2018)이 개발한 놀이참여태도 척도를 참고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설문은 5점 Likert 척도로 놀이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5점), 중요하다(4점), 보통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96)

Characteristic	Categories	Disabled (n=106)		Non-disabled (n=490)	
		N	%	N	%
Age(years)	6 - 7	18	16.8	165	33.6
	4 - 5	51	48.6	228	46.6
	2 - 3	33	30.9	86	17.6
	1 - 2	4	3.7	11	2.2
Birth order	First	73	69.2	282	57.6
	Second	29	27.1	180	36.7
	Third	4	3.7	28	5.7
Main caregiver	Mother	97	91.6	426	86.9
	Grand mother	2	1.9	37	7.6
	Etc.	7	6.5	27	5.5

다(3점), 중요하지 않다(2점), 매우 중요하지 않다(1점)로 채점하였으며, 놀이 시 즐거움은 매우 즐겁다(5점), 즐겁다(4점), 보통이다(3점), 즐겁지 않다(2점), 매우 즐겁지 않다(1점)로 알아보았다. 놀이참여 시간은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부모가 각각 자녀와 평균 몇 시간 놀이에 참여하는 지 작성하도록 하였다. 놀이정보 습득 경로는 Lee와 Lee(2010)의 양육 정보 습득 경로를 참고하였으며, 놀잇감 선택 시 고려사항은 Case-Smith와 O'Brien(2015)의 장난감이 갖춰야 할 충족 조건을 참고하였다. 추가적으로 놀이감을 사주는 빈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항상 사준다', '자주 사준다', '보통 정도로 사준다', '가끔 사준다', '전혀 사주지 않는다'와 같이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및 분석은 SPSS Version 23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정보, 놀이감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적 통계 중 빈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장애아동 부모와 비장애아동 부모의 놀이 시간, 놀이 중요성, 놀이 즐거움 등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5로 지정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놀이 인식 및 참여시간

자녀와의 놀이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장애 아동 부모의 경우 '매우 중요하다'가 68명(64.2%), '중요하다'가 38명(35.8%)이었으며, 비장애 아동 부모의 경우 '매우 중요하다'가 235명(48.0%)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요하다'가 210명(42.9%), '보통이다'가 45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놀이에 대한 즐거움 인식은 장애 아동 부모의 경우 '즐겁다'가 48명(4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가 37명(34.9%), '매우 즐겁다'가 14명(13.2%), '즐겁지 않다'가 7명(6.6%)으로 나타났다. 비장애 아동 부모의 경우 '즐겁다'가 284명(57.8%)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가 134명(27.3%), '매우 즐겁다'가 62명(12.6%), '즐겁지 않다'가 10명(2.0%), '매우 즐겁지 않다'가 1명(0.2%)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장애 아동 부모와 비장애 아동 부모의 놀이 중요성, 놀이 즐거움을 분석한 결과, 장애 아동 부모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4.64 ± 0.48 이었으며, 비장애 아동 부모의 놀이 중요성에 대한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는 4.39 ± 0.65 으로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Table 2. Recognition About Play Importance and Play Enjoyment

(N=596)

Characteristic	Categories	Disabled (n=106)		Non-disabled (n=490)	
		N	%	N	%
Play importance	Very important	68	(64.2)	235	(48.0)
	Important	38	(35.8)	210	(42.9)
	Fairly important	0	(0.0)	45	(9.2)
	Slightly important	0	(0.0)	0	(0.0)
	Not important	0	(0.0)	0	(0.0)
Play enjoyment	Extremely	14	(13.2)	62	(12.6)
	Very	48	(45.3)	284	(57.8)
	Average	37	(34.9)	134	(27.3)
	Slightly	7	(6.6)	10	(2.0)
	Not at all	0	(0.0)	1	(0.2)

보였다($p < .01$).

장애 아동 부모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3.65 ± 0.79 이였으며, 비장애 아동 부모의 놀이 즐거움에 대한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는 3.81 ± 0.67 으로 두 집단은 p 값이 0.05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차이를 보였다(Table 3).

학령전기 아동 부모의 놀이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 아동과 놀이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장애 아동의 경우 모가 주중 하루 평균 3.87시간, 주말 5.87시간이었으며, 부는 주중 하루 평균 1.45시간과 주말 4.23시간이었다. 비장애 아동의 경우 모가 주중 하루 평균 3.38시간과 주말 5.72시간이었으며, 부는 주중 하루 평균 1.80시간과 주말 4.49시간이었다. 모의 경우 장애아동의 모가 놀이참여 시간이 더 많았고, 부의 경우 비장애

아동의 부가 더 많았다. 그러나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부/모의 주중/주말 4그룹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2. 놀이 정보 습득 경로

놀이 정보 습득경로를 살펴보면, 장애 아동 부모의 경우 '지인'이 50명(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이 47명(44.3%), 'TV 방송'이 34명(32.1%), '직접 판단'이 23명(21.7%) 순이었다. 비장애 아동의 부모의 경우 '인터넷'이 197명(40.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직접 판단'이 123명(25.1%), '책'이 98명(20.0%), 'TV 방송'이 86명(17.6%) 순이었다(Table 5).

Table 3. Comparison of Play Importance and Play Enjoyment

(N=596)

Characteristic	Disabled (n=106)	Non-disabled (n=490)	t
	M ± SD	M ± SD	
Play importance	4.64 ± 0.48	4.39 ± 0.65	-4.510**
Play enjoyment	3.65 ± 0.79	3.81 ± 0.67	1.949

** $p < .01$, * $p < .05$

Table 4. Comparison of Information About Play Time With Children

(N=596)

Characteristic		Disabled(hr) (n=106)	Non-disabled(hr) (n=490)	p value	
		M ± SD	M ± SD		
Play time with children	Father	weekday	1.45 ± 1.83	1.80 ± 1.81	0.78
		weekend	4.23 ± 3.07	4.49 ± 3.15	0.429
	Mother	weekday	3.87 ± 2.98	3.38 ± 2.51	0.119
		weekend	5.87 ± 3.41	5.72 ± 3.48	0.909

Table 5. Play Information Acquisition Path

(N=596)

Characteristic	Disabled (n=106)		Non-disabled (n=490)	
	N	%	N	%
Internet	47	44.3	197	40.2
Self-judgment	23	21.7	123	25.1
Book	9	8.5	98	20.0

3. 놀잇감의 구매빈도와 고려사항

놀잇감을 사주는 빈도는 장애 아동 부모의 경우 '보통 정도로 사준다'가 48명(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끔 사준다'가 30명(28.0%), '자주 사준다'가 26명(24.3%), '항상 사준다'가 1명(0.9%), '전혀 사주지 않는다' 1명(0.9%)이었다. 비장애 아동 부모의 경우 '보통 정도로 사준다'가 195명(39.8%)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주 사준다'가 136명(27.8%), '가끔 사준다'가 130명(26.5%), '항상 사준다'가 26명(5.3%), '전혀 사주지 않는다'가 3명(0.6%)이었다(Table 6).

놀잇감 구매 시 부모가 어떠한 점을 고려하는지를 살펴보면, 장애 아동 부모와 비장애 아동 부모 모두 '1순위'는 흥미유발, '2순위'는 발달수준 고려, '3순위'는 안전이었다(Table 7).

하여, 자녀의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참여 실태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아동의 부모가 비장애 아동의 부모에 비해 놀이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 아동의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있어 더 많은 관심을 두기 때문으로 보인다(Hamner & Turner, 1985). 한편, 장애아동의 부모는 정상아동의 부모에 비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그때마다 좌절감이 생기기 때문에 양육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상태에 놓인다(Hong 2016; Kim, 2003; Yang, 2001). 그리고 이러한 장애아동 부모의 부정적인 심리상태는 자녀와의 놀이 시 질적인 개입에 방해를 줄 수 있다. 놀이 관련 전문가가 장애 아동 부모에게 놀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부모들의 중요성 인식과 심리적 요인이 모두 반영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부모 모두 놀이에 대해 즐거움 인식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자녀와의 놀이에 대한 즐거움을 중요성에 비해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얻는 스트레스가 부정적

IV. 고찰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장애아동 부모와 비장애 아동 부모들에게 자녀의 놀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

Table 6. Purchase Frequency of Toys

(N=596)

Characteristic	Disabled (n=106)		Non-disabled (n=490)	
	N	%	N	%
Always	1	0.9	26	5.3
Often	26	24.3	136	27.8
Average	48	45.8	195	39.8
Not often	30	28.0	130	26.5
Never	1	0.9	3	0.6

Table 7. Why Parents Want to Get Through Toys(Multiple Choices)

(N=596)

Characteristic	Disabled (n=106)	Non-disabled (n=490)
First	Interest(96)	Interest(337)
Second	Development level(62)	Development(299)
Third	Safety(43)	Safety(224)

인 정서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여진다(Choung, 2010). 즉, 자녀와의 놀이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놀이에 대한 즐거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는 자녀의 놀이 상대로서, 또래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의 놀이를 통해 사회성의 기초를 이루므로 자녀와 함께 하는 놀이는 매우 중요하다(Choi, 1992). 이렇듯 자녀의 발달에 중요한 부분인 부모의 놀이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가 놀이에 대해 즐거움 인식 수준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부모들의 자녀와의 놀이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알아보았으며, 즐거움 인식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는데(Choi, 2016; Jo & Park, 2014; Kim, 2012; Kim, 2013; Noh, Jung, & Jang, 2004), 본 연구에서는 즐거움과 중요성 모두 알아보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장애 아동의 부모와 비장애 아동의 부모의 놀이 참여시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장애와 상관없이 모가 부에 비해 자녀와의 놀이 참여시간이 많았다.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어머니들이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은 주중에는 3~4시간, 주말에는 5~6시간이었으나,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부들이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은 주중에는 1~2시간, 주말에는 4~5시간이었다. 즉, 어머니가 부에 비해 주중에는 2시간, 주말에는 1시간 정도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Snarey(1993)와 Kim, Jo, Park과 Sin(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주 양육자가 주로 모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Lee(1992)는 자녀와의 놀이 참여 시 부모의 바람직한 태도는 자녀의 자발적인 행동 관찰을 통해 자녀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라 하였다. 더 나아가 자녀가 좋아하는 것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놀이 활동을 확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놀이가 되려면, 충분한 놀이시간과 함께 아동의 놀이 욕구를 알고 흥미를 유도하는 질 높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놀이 정보 습득경로는 장애 아동의 부모는 지

인에게 얻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비장애 아동의 부모는 인터넷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인터넷 미디어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Yoon, 2009). 하지만 인터넷 정보들이 부모와 자녀에게 유용한 놀이 정보라고 판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부모들이 놀이 정보를 얻는 데 있어 인터넷의 접근성에 높은 것만큼 인터넷 놀이 정보의 질적인 분석으로 부모와 아동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놀이 정보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다섯째, 자녀에게 놀이감을 사주는 빈도와 놀이감 선택 시 고려사항은 장애 아동의 부모와 비장애 아동의 부모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부모 모두 자녀에게 놀이감을 사줄 때 고려하는 사항은 흥미 유발, 발달수준 고려, 안전 순이었다. 이는 Park과 Kim(2011)의 연구 중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동 놀이의 발달적, 적응적 기능보다는 학업적 성공을 위한 선행학습으로서의 수단적 가치에 더 관심을 보이며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놀이나 놀이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자녀에게 바람직한 놀이를 장려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모들에게 자녀의 발달수준과 특성에 맞는 놀이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놀이를 자녀에게 올바르게 제공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 아동 경우에는 진단명과 기능 수준에 따라 적절한 놀이를 선택하고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아동 비해 전문가의 놀이 지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 아동의 부모와 비장애 아동 부모의 놀이 인식 및 참여에 관해 비교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장애 아동의 부모와 비장애 아동 부모의 대상자 수가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장애 아동 부모와 비장애 아동 부모의 자녀 연령, 형제 유무, 주 보호자의 비율이 비슷하므로, 두 그룹이 판이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

에 참여한 장애 아동의 진단과 기능 수준이 다른데, 이러한 점이 놀이와 관련된 부모의 인식과 참여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부모의 놀이 인식 및 놀이 참여시간에 대해서는 알 수 있었지만, 놀이 인식과 참여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알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놀이 인식과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알아보고, 이러한 요소를 지닌 부모들을 위한 적절한 놀이 교육이 이루어져 가정에서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놀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줘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학령전기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놀이 인식 및 참여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였다. 장애아동 부모 106명과 비장애 아동 부모 490명을 대상으로 놀이 인식 및 참여시간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아동의 부모와 비장애아동의 부모간의 차이를 보인 결과는 놀이에 대한 중요성이었는데, 장애아동의 부모가 자녀와의 놀이에 대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 외 자녀와의 놀이 시간 동안 즐거움 인식 정도, 자녀와의 놀이 참여시간, 놀이 정보 습득경로, 놀이감을 통한 놀이 시 부모가 원하는 것 등의 결과에서는 장애아동 부모와 비장애 아동 부모 모두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장애와 상관없이 부모들이 자녀의 놀이에 대해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놀이의 효과 또한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아동에게 놀이는 재미를 주는 활동일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치료적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장애아동에게 놀이정보는 더 전문적이고 장애아동이 가진 문제점에 맞춰진 놀이 방법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김성희, 이연희, 오옥찬, 황주희, 오미애, 이민경, ... 이선우. (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Choung, E. H. (2010).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anger ex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Case-Smith, J., & O'Brien, J. C. (2015). *Occupational therap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St. Louis, Missouri: Elsevier.
- Choi, H. H. (2016). *Parents' perception and actual situation of playing childhood earth*(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Seoul.
- Choi, M. S. (1992). *A study on young children's play behavior*(Doctoral dissertation). Jeonnam University, Gwangju.
- Fogel, A., Shapiro, A. F., Hsu, H. C., & Secrist, C.(2006). Effect of normal and perturbed social play on the duration and amplitude of different types of infant smiles. *Developmental Psychology, 42*(3), 459-473. doi:10.1037/0012-1649.42.3.459
- Grossmann, K., Grossmann, K. E., FremmerBombik, E., Kindler, H., ScheuererEnglisch, H., & Zimmermann, A. P. (2002). The uniqueness of the child-father attachment relationship: Fathers' sensitive and challenging play as a pivotal variable in a 16year longitudinal study. *Social Development, 11*(3), 301-337. doi:10.1111/1467-9507.00202
- Hamner, T., & Turner, P. (1985).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 Hughes, F. P. (2010). *Children, play, and development*. California, CA: Sage.
- Hong, S. H. (2016). *Psychological exercise interventions based on social experience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resilience of infant mothers effect*(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
- Hong, S. K. (2010). *Parents' perception on the play of infants*(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Jang, H. J., & Yun, E. J. (2014). The current status of parental capacity for children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10*(2), 295-317. doi:10.14698/ jkce.2014.10.2.295
- Jo, S. Y., & Park, E. H. (2014). An image of play at a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 seen through a child's pictur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8*(2), 35-57.

- Jeong, D. Y., & Choi, J. A. (2010). Psychological well-being comparison of parents with disabilities and children with parents. *Korea Society for the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6(3), 319-343.
- Kim, J. S. (2000). *A study on parent '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early childhood play*(Master 's thesis). Gyeonggi University, Suwon.
- Kim, J. W. (2012). *A study on parents and teachers' perceptions and actual situations of nature-friendly outdoor activities*(Master's thesis). Kunsan National University, Gunsan.
- Kim, K. R. (2003).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ist on stress reduction of parents with disabilities: Focused on mothers*(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 Kim, K. W., & Lee, I. S.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 rearing involvement of fathers and children's social-emotion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9(2), 65-75.
- Kim, M. N. (2013). *Parents' perception and participation in play for infants and toddlers*(Master's thesis). Kangnam National University, Seoul.
- Kim, M. S., Jo, H. R., Park, Y. R., & Sin, H. Y. (2013). The study of parents and children regarding play: Focused on parental play beliefs and play participatio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5(1), 37-53.
- Kim, Y. S. (199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and importance of mother's play*(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H. J., & Chung, H. W. (2016).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ents' play beliefs, play participation and the child's happines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s' play participation.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1(4), 77-95. doi:10.16978/ecec.2016.11.4.004
- Lee, J. H. (1992). *Education for the mentally retarded through play*. Seoul, Korea.
- Lee, J. Y., & Lee, S. H. (2010). The acquisition of parent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levels of mothers with infants and toddl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4), 179-197.
- Lee, S. E., & Lee, J. L. (2010). The moderating role of young children's playfulness and the association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d young children's peer competenc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6), 71-85.
- Lee, S. Y., Wui, Y. H., Yoo, J. R., Chyung, Y. J., Lee, Y. A., & Kim, L. J. (2018). The validation of the play participation attitude scale for parents of preschoolers.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21(4), 491-507. doi:10.17641/KAPT.21.4.4
- Lee, Y. N., Lee, Y. M., Park, Y. S., Kim, H. S., Beak, H. Y., & Mun, H. J. (2009). Study on the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ren's play and multicultural play. *A Study on the Transformed Infants Education*, 63(1), 77-102.
- Lee, Y. S.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style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 Disorders*, 26(3), 63-90.
- Noh, Y. S., Jung, Y. S., & Jang, H. J. (2004). Study on parental perception of preschool children's play. *Journal of Human Ecology*, 8(2), 87-105.
- Park, H. S. (2003). The comparison of the awareness of children's play between kindergarten teachers and parents.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35(35), 221-240.
- Park, Y. A., & Kim, R. J. (2011). Childhood play experience, play-related perceptions and child perception of mothers of children between preschool through third grade and their mother-child play condition.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4(2), 37-56.
- Pellegrini, A. D. (1995). *School recess and playground behavior: Education and developmental roles*. Albany, New York: SUNY Press.
- Rothlein, M., & Brett, A. (1987). Children's teacher and parent's perception of pla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 45-53.
- Slade, A. (1987). A longitudinal study of maternal involvement and symbolic play during the toddler period. *Child development*, 367-375.
- Snarey, J. (1993). *How fathers care for the next generation: A four decade stud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on, H. Y. (199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level of play and infant's social ability*(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Yang, K. H. (2001). *A study on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children with autism and children with autism*(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Gwangju.
- Yoon, S. O. (2009) A Study on acceptance factors of internet information upon the evaluation of information value and the level of participatory recognition. *Korean Political Communication Association*, 14, 85-122.

Abstract

Comparison of Play Perception and Play Participation of Parents of Disabled Children and Non-disabled Children in Preschool Age

Park, DaSol^{*}, B.H.Sc, O.T., Lee, EunYoung^{**}, M.S., O.T., Lee, SunHee^{**}, M.S., O.T.,
Park, Hae Yean^{***} Ph.D., O.T.

^{*}Yonsei Soul Psychiatry Hospital, Occupational Therapis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octor Course, Student

^{***}Dept.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 Yonsei University, Professor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comprehensive survey of children's play in parents of disabled and non-disabled children prior to commencing school. This study aimed to further understanding play recognition and to present a specific direction of play necessary to each parent.

Methods : A questionnaire based on prior studies was sent to 700 people who had previously agreed to the take part. A total of 596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ncollected and insincere surveys, of which 106 were questionnaires for parents of disabled children, were excluded from analysis. The SPSS Window 23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and frequency analysis and the independent sample T test were performed.

Results : Disabled children's parents perceived playing with their children as more important than that of non-disabled children's parents ($p < 0.01$).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disabled children and non-disabled children's parents, but there were some differences ($p = 0.053$). Both disabled and non-disabled children had more time to participate with their mothers than with their fathers. Mothers with disabilities had more time to play however, fathers with no disabilities had more time. Both disabled and non-disabled children's parents had the most "ordinary" frequency of buying toys and there was very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2 groups. Both disabled and non-disabled children's parents primarily used the internet to acquire play information, and consideration when buying fun was followed by interest inducement, development level and safety.

Conclusion :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compare the status of play recognition and participation by parents of children with or without disabilities. Based on this study, parents will be able to find out what they really need to play and will be provided as a basis for future play studies for children.

Key words : Disabled children, Parents, Play participation, Play perception, Preschooler children